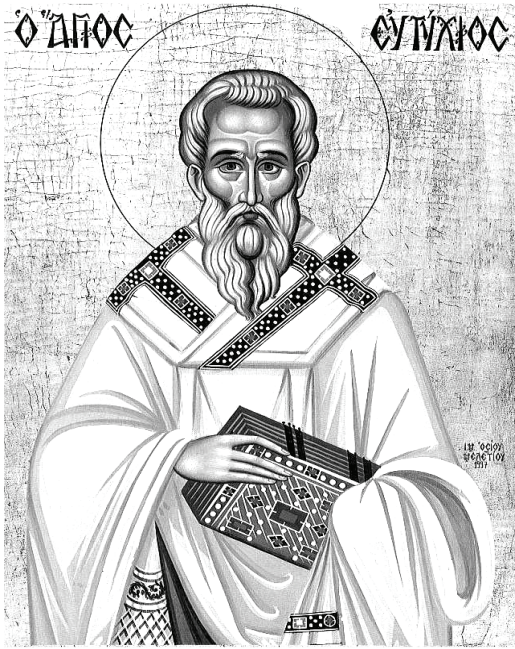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프티히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사순절 제3주일 / 십자가 경배 주일

성 이파티오스 주교순교자

(조과에서 '찬양되시는 주여'는 부르지 않는다.
대영광송 후 십자가 경배 주일 의식을 거행한다.)

제3조, 조과복음 1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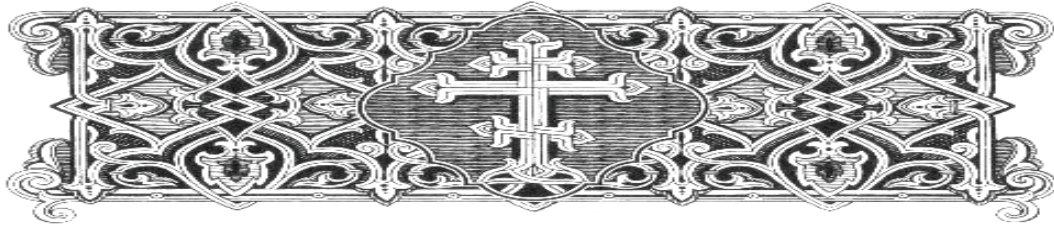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삼성송 대신 주여, 주의 십자가에... / 230, B 292
- 사도경 : 히브리 4,14-5,6 / 230, 봉독서 451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39, B 96
-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프티히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우리 교회에서는 4월 6일에 성 에프티히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에프티히오스의 삶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영적 품위가 사람을 성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은 젊었을 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좋은 사목자들 곁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였고, 나중에 총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에 황제의 잘못을 비판해서 유배당했습니다.

그때 성인의 영성과 거룩함이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수도자처럼 기도와 수련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인처럼 살려면 우리도 내면에 있는 영적 세상의 가치와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잘 참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직의 존엄성을 존중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소리 지르며 불평합니다.



시편의 보물

성 대 아타나시오스는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성서의 모든 책을 요약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책은 오직 특정한 사건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로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반면 시편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또한 성 대 바실리오스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잡다한 생각의 파도와 소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정한 호의를 가꾸어줍니다. 원수와 화해하게 해주고 악마들을 몰아내며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도움을 가져다줍니다... 시편은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에 회개를 가져옵니다. 시편을 통해 바위와 같은 마음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처음 접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실망하지 맙시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으로 큰 도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4세기에 성 대 아타나시오스는 여러 상황에 따라 읽으면 좋은 시편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해주셨습니다.

1. 기도하길 원할 때 읽을 수 있는 시편들 - 17, 68, 90, 102, 132, 141, 142, 143편
2. 외로움, 실망감, 두려움을 느낄 때 - 24, 28편
3. 여행이나 일을 하러 집을 떠날 때 - 122편
4.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길 원할 때 - 116편
5. 병들고 고통이 있을 때 - 92편
6.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걱정이 있을 때 - 108편
7.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 38편
8. 유혹에 빠졌을 때 - 140편
9. 죄를 지었을 때 - 51편
10. 직장이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 145편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정교회: 현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고대 그리스도의 교회

(트리폰 수도원장)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교회의 일원이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성명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술이다. 세계의 곳곳에 정교회 성당과 정교회의 선교 활동, 그리고 수도원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정교회 나라들인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인도와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영국제도, 인도네시아, 스칸디나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정교회가 있다.

정교회는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남미에 두루 있다. 실제로 남극 대륙 전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종교 시설은 정교회 성당이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생생하게 잘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에 걸쳐서 발견되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성모 희보 축일 성찬예배

지난 3월 23일(토)~24일(일) 성모 희보 축일을 맞이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을 방문하여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와 함께 축일 예배를 거행했습니다.

23일(토) 오후에는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배를 집전하였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신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영적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4일 주일에는 조과에 이어 성찬예배를 거행하였고, 대주교님께서는 성모 희보 축일과 관련하여 천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각자는 우리의 수호 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모두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가대가 준비한 축일 축하 공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성가대와 복사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2018년 한국 방문 동영상을 시청하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로부터 유익한 영적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일을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제4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 4월 3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5일(금) 오후 6시 : 성모 기립 찬양(제4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주시요.)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